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군, 야생동물 피해 막는다

장성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겨울철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논밭이나 주택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동물 침입을 막는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설치비는 400㎡당 전기울타리는 230만원, 철선울타리는 880만원을 기준으로 설치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9년부터 지역 농가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피해사례가 많이 줄어

농가에 철선·전기울타리 등 지원 오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들고 있지만, 야산에 있는 농가나 논밭 등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예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061-390-733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연중 운영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를 조절해 가는 한편, 농작물 피해 보상금 제도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구례군서 가야계 무덤·유물 확인

섬진강과 내륙 통한 가야와 백제의 교류 증거 확인

구례군은 지난달 29일 토지면 용두리에서 '구례 용두리 고분 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설명회를 통해 '구례 용두리 고분' 긴급발굴조사 중간 성과를 공개하였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군과 (재)한문화연구원(원장 조근우)에서 추진하는 '구례 용두리 고분' 긴급발굴조사는 구례 용두리 고분이 1980년대부터 경작과 개간 과정에서 가야계의 땅이 수습되어 알려지면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 가야계 토광묘(복곽묘, 복관묘), ▲ 청동기시대 집자리 등이 확인되었다.

유적은 섬진강과 인접한 용두리 마을 남쪽의 낮은 구릉(해발 45m)에 위치하며, 구례읍을 관통하는 서시천이 섬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넓게 형성된 충적지의 단구 구릉에 해당한다. 용두리마을의 강변에는 하동에서부터 섬진강을 건너는 배를 매는 '배물제'라는 지명과 함께 신창장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왔던 곳이다. 토광묘는 3기가 확인되었으며, 모두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고, 묘광과 관(관) 사이는 회색 점토로 채워 넣은 구조이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덤양식과 출토유물은 추후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과 백제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설맞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오는 14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농축수산물 판매장 등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사원 등 20여명이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판매장,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활어 등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888개, 음식점 20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의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인구 늘리기 중장기 로드맵 수립

인구정책 5개년 종합 계획 등

영광군이 인구정책 5개년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인구 늘리기 위해 군의 사활을 걸고 세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군은 2017년 말 기준 인구가 5만 4천여 명 선까지 하락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인재 유출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사회적 부담은 물론 지역의 존립마저 위기에 놓일 것으로 판단하고 인구문제 극복 과제를

군의 첫 번째 과제로 정하고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위하여 '영광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로드맵 수립을 위한 결혼·출산·양육·교육환경 조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귀농·귀어·귀촌 기반 마련, 생활 친화도시 조성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정 영광군 인구정책 위원회도 구성한다.

인구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원 공개 모집에 응모 가능하고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도 가능하다.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전임장려금 등 일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기존 '영광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군의 책무를 명시하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여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군 내부 기구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영광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내부 역량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군수는 "인구 늘리기 운동이 지속 전개해 왔으나 지속 가능한 인구증가 동력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대미산유단지 등의 기업유치 외의 뚜렷한 인구 유입요인인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책 발굴에 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군, 2018 시설직 공무원 직무 교육 실시

고흥군은 지난달 30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시설직(토목)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스팅이앤씨' 김철환 이사를 초빙하여 공사의 시작인 설계부터 시공, 공정관리, 준공까지 단계별 핵심 공법에 대해 점검하는 동시에, 현재 대두되는 '안전'에 대해 강조하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전문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사 감독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 학교·나산면은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정보부족 등으로 제도적 차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 주민을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동상담실은 기관 방문의 어려

움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알권리 제공하고, 복지제도 소개 등 개별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으로 잠재적 복지사각지대 주민까지 발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보건소 이동진료서비스와 복지상담을 병행해 보건복지민원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촘촘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학교면 영회촌 경로당에서 상담에 참여한 주민 김순자(65세, 여)씨는 "생활이 어려워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어려웠는데, 면에서 직접 방문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차상위계층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 감사하

다."고 말했다.

정제원 나산면장은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실을 통해 주민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누락 없는 복지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나산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만 학교면장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경로당 이용이 많은 농민기에 맞춤형복지 이동상담실을 집중 운영해,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함평군 학교·나산면, '맞춤형 이동상담실' 운영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요망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